

[하]

최현숙
리홍규
저

대호수

연변인민출판사

장편소설

대 홍수

하

리홍규, 최현숙 지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김정옥

책임교정: 김해연

기술설계: 정선숙

图书在版编目 (C I P) 数据

大洪水: 朝鲜文 / 李弘奎, 崔贤淑著.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9.5

ISBN 978-7-5449-0600-5

I. 大… II. ①李… ②崔… III. 长篇小说-中国-当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47.5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9) 第076036号

大洪水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http://www.ybcps.com>)

印刷: 延边星月印刷有限公司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2 印张: 24.375 字数: 700千字

标准书号: ISBN 978-7-5449-0600-5 (民文)

版次: 2009年5月第1版

2009年5月第1次印刷

印数: 1000册

定价: 45.00元

如发现印装质量有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차레

제18장 혼담	375
제19장 철석간장	404
제20장 출격	437
제21장 불안한 밤	461
제22장 민심	485
제23장 실종	503
제24장 철폐	524
제25장 선과 악	550
제26장 해탈	575
제27장 미결수	600
제28장 석방	630
제29장 새 상여	648
제30장 옛날의 원옥	667
제31장 해명	684
제32장 소산명령	700
제33장 동강의 새 아침	723
제34장 에필로그	759
후기	767

제18장 혼담

1

숙소로 돌아간 진국부는 불을 켜놓고 높은 구들우에 올라가 포개놓은 이불에 기대여 방금 채송학의 집에서 있던 일을 돌이켜보았다.

(그 여자가 성위 홍서기의 친척일리는 만무하다. 수상한 여자다. 춘희란 여자도 채송학에게 붙어있는 계집이다. 내가 그년들을 미혹시키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그런 추태극을 놀았으니 참새 방아간을 넘는다고 그 년놈들은 모르긴 해도 아마 지금쯤 배를 끌어안고 깔깔거리며 나를 비웃고들 있을것이다. 내가 들어갔을 때 그 당황해하는 꼴을 보지, 흥, 어느 년놈이 내 눈을 속여. 뭐 송학이 나를 대접하려고 고기잡이를 갔다고? 소 웃다 꾸레미 터지겠다... 내가 세살 먹은 아인줄 아는가? 눈을 가리고 아웅해도 분수가 있지. 야살스럽고 망측한 년, 어디 두고보자. 일망타진하고야말테니까...)

진국부는 이 '소대만'에서 온갖 잡귀신을 쫓아버리고 그들이 빼앗아간 권력을 도로 찾아다 장한무와 같은 반란파들에게

넘겨주고 ‘홍색근거지’를 세운 다음 저들이 쥐락펴락하게 하지 못하면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하겠다’는 굳은 맹세를 다지며 장한무를 목이 빠지게 기다렸다.

한편 진국부를 찾아가던 장한무는 도중에서 송학이가 “왕전이는 부농이 아니다”라고 하던 말을 상기하였다. 그러자 (왕전이 송학이 말한것처럼 부농이 아니라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다면 왕전이나 송학이를 거꾸러뜨리지도 못하고 나만 인심을 잃고 여기서 배겨내기가 곤란하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심이 머리속에서 맴돌아들었다. 일하기 싫어하고 아무데나 돌아다니며 놀기를 좋아하는 장한무에게는 이번 운동에서 대대간 부자리나 하나 얻어서 남보다 편하게 지내면서도 잘살아보자는 자그마한 야심밖에는 없었지만 바람을 보고 돛을 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긴요한 관두에 가서는 언제나 앞뒤를 재고 돌다리도 두들겨보며 조심조심 걸어가는 위인이었다. 하여 걸으면서도 진가에게 가서 보고 들은 사실을 곧이곧대로 보고하는가? 아니면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한참동안 치열한 사상투쟁을 벌이였다. 마지막에 그는 (에라, 그만 뒤라.) 하고 길을 꺾어 자기 집 방향으로 발을 옮겨놓다가 또 피딱 (아니다. 진가의 뒤심은 현위가 아니냐? 마청림이나 채송학은 그의 적수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 다시 발을 돌려 진가를 찾아갔다.

진국부는 장한무를 보자마자 자세를 바로하고 앞으로 나아오며 성급히

“무슨 새로운 동태가 있딘가?” 하고 물었다.

장한무는 처음에 비술나무뒤에 숨어서 엿본 사실이며 후에 왕금산의 집 뒤뜰 창문밑에 기여가 쭈그리고 앉아 엿들은 일체

사실을 곧이곧대로 다 보고하였다.

한마디도 놓칠세라 긴장하게 귀를 도사리고 듣고있던 진국부는

“난 언녕 송학이가 그럴줄 알았어.” 하고 자기의 예견성을 자랑하고나서 푸르텡텡해나며

“최후발악을 하면 할수록 좋은 끝장은 보지 못할것ियो.” 하고 씨벌였다.

“진동무, 이제 전 어떻게 하랍니까?”

“돌아가서 오늘밤중으로 방금 말한 사실을 서면으로 써서 래일 직접 나에게 주오. 그리고 당분간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말해서는 안되오.”

“알았습니다.”

“그리고 금후 계속 채송학이며 춘희며 또 송학이네 집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을 감시해야겠소. 오늘 나는 웬 낮선 녀자가 그 집에 와있는것을 보았소.”

장한무가 떠나간후 진국부는 오늘저녁의 사실을 돌파구로 삼고 투쟁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을 계획을 빈틈없이 짜다가 닭이 화를 친 다음에야 겨우 눈을 붙이고 쪽잠을 잤다.

이튿날 아침 늦게야 잠을 깬 진국부는 아침을 먹으려고 지정된 춘희네 집을 찾아가다가 길에서 홍명들과 어제저녁에 송학이네 집에서 본 그 낮선 처녀가 마주서있는것을 보았다. 명화라는 그 처녀가 뽀로통해서 큰소리로 명을이를 닭아세우는듯한 쟁쟁한 목소리가 귀청을 때렸다.

명화는 진국부가 오는것을 보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까딱하고 알은체하고는 종종걸음으로 동구밖을 향해 걸어가는것이였다.

진국부는 징그럽게 웃으면서

“그 처녀 절색은 못돼도 미인은 미인이야. 동무 아는 여자요?” 하고 이죽거렸다.

“쟤 내 누이동생이요.”

“뭐 누이동생이라고? 거짓말 말게.”

“정말이요.”

“어제 난 송학이네 집에서 저 녀잘 보았네. 방금 자네를 욕하는듯했는데 정말 누이동생이 옳은가?”

명을이는 태연히 거짓말을 했다.

“날 찾아왔는데 송학이네 집에서 춘희라는 여자와 같이 잔 모양이요.”

“그런가?”

진국부는 명을이와 같이 걸어가다가 지나가는 말처럼

“자네 누이동생은 정말 멋진데. 대상이 있겠지?” 하며 고개를 돌리고 명을이를 바라보았다.

“아직은 없을거요.”

“그럼 내게다 소개해주지 않겠나?”

“맙소사. 돼지상을 한 당신 같은 사람에게 어느 처녀가 반한다던가?”

“에끼, 이 사람, 자넨 지금 처녀들은 권력과 지위라면 오금을 못쓴다는걸 모르는가? 내가 이래 보여도 달라붙는 처녀가 저그만큼 한타스는 될거야.”

홍명을은 비웃는듯이 꺾꺾거렸다.

“명을이, 톱담이 아니야. 난 첫눈에 자네 누이동생에게 반했네. 허허...”

“그만두라고.”

명을이는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명화가 진가 같은

사람에게 시집을 가기만 한다면 현에 올라가는것은 때놓은 당상이고 남부럽지 않게 호강도 할수 있을것이며 그 덕에 자기도 출세할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허나 명화와 부모들이 절대 동의하지 않으리라는것을 불보듯 뻔하게 알고있었다.

이런 생각을 한 명을이는 피식 웃었다.

“당신이 팔불출처럼 자기 자랑을 하는데 재간이 있으면 그 앨 후려보시구려. 그러나 하늘의 별을 따기보다도 바쁠걸.”

“일후에 오거든 꼭 내게다 인사를 시켜주게. 그리고 자네만 방애를 놀지 말게.”

“그건 걱정 말게. 하나 개가 말을 들으면 내 손바닥에 장을 지지겠네.”

의뭉스러운 명을이는 이런 말로 진가를 부추겨주었다.

“좋아!”

명을이와 갈라진 진국부는 춘희네 집에 가 아침을 먹고 저녁에 소집할 투쟁대회를 준비하려고 우선 공작대 대원들과 몇몇 열성분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열었는데 현위에서 긴급전화가 왔다.

현에서는 진국부에게 즉시로 대원들을 거느리고 K공사로 이동해가라는 지시를 내렸다. 진국부는 오늘저녁이면 새 국면을 열수 있게 되겠는데 가지 못하겠다고 떼질을 썼지만 현에서는 K공사의 문제가 더 크니 그것부터 처리한 다음에 다시 동강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하며 더 말하지 못하게 하였다. 하여 진국부는 막무가내로 장문준이만 남겨두고 즉시로 떠나갔다.

동강사람들은 진국부가 무엇때문에 방금 투쟁을 벌여놓고 부랴부랴 떠나갔는지 몰랐다.

군중들이 후에야 들은데 의하면 K공사의 한 조선족청년이

현성에 가 식당에 들어갔다가 한족망나니들에게 맞아죽었는데 격분한 일부 조선족군중들이 시체를 매고 현성에 가 시위행진을 단행하려 한 사건이 국무원에까지 반영되는 바람에 주총리께서 아시고 즉시 사실진상을 조사하고 범인을 징벌하며 민족정책을 정확히 관찰하여 단결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시를 내렸기에 현에서는 많은 인마를 조직해서 K 공사로 내려보냈다는 것이었다.

진국부가 비록 가긴 했지만 장한무는 뻔질나게 그를 찾아다녔으며 그의 입을 통하여 여름에 돌아온다는 등 소식이 련속부절히 동강에 전해졌다.

2

홍명화는 이마적 주일마다 동강으로 드나들었다. 오늘도 그녀는 쉬는 짬을 타서 채송학이네 집으로 왔다.

문을 열고 빈집에 들어서기 바쁘게 멜가방을 못에 걸어놓은 명화는 창문부터 죄다 열어젖혔다. 화창한 봄날의 맑고 따듯한 공기가 밀려들어 방안의 매캐한 냄새를 몰아냈다.

명화는 저고리를 벗어내치고 머리에 꽃수건을 친 다음 일손을 잡았다. 되는대로 포개서 벽에 기대 쌓아놓은 이부자리를 하나하나 뜰에 내다 빨래줄에 걸고 이구석저구석에 지저분히 널려 있는 옷들을 벽에다 보기 좋게 걸어놓았다.

그리고는 비자루를 들고 먼지를 털고 구들을 쓸고 방바닥을 걸레로 깨끗이 닦았다.

녀자의 손은 기름손이라서 그런지 부엌던 방안이 잠간사이에 반들반들 윤기 돌듯 산뜻해지고 말끔해졌다.

명화는 여기 와 머무르는 시간이 너무 짧은것이 한스러웠다. 몇시간후이면 돌아가야 할 사정을 생각하면 아무리 부리나케 일손을 놀린다 해도 미흡하기만 했다.

그녀는 식당안까지 정돈하고나서 뜰에 나가 뽕프대밑에서 빨래를 하였다. 채송학의 땀 배인 옷들에서는 시커먼 물이 우러 나왔다. 강물에 가 왈랑왈랑 빨았으면 좋으려만 그럴 시간이 없었다.

빨래를 널고나니 점심때가 오라지 않았다. 명화는 집에 들어가 메고 온 가방에서 새 해보를 꺼내 옷방 옷걸개우에 쳐놓았다. 푸른 소나무 한그루가 우뚝 서있는 그림에 흰 선학이 놀고 있는 그림을 보는 명화의 얼굴에는 방긋이 웃음이 피어났다. 명화는 채송학이를 상징하는듯싶은 이 그림이 있는 해보를 골라 산것이 못내 마음에 흡족했다.

명화는 창문들을 걷어닫고 종종걸음으로 유치원으로 찾아갔다.

집안에서 어느새 명화가 오는것을 본 마청림의 처 왕수란이는

“영애야, 아줌마가 온다!” 하고 소리쳤다.

반달전에 명화가 대신구에 갔을 때에도 영애가 눈물이 가랑가랑해서 아버지와 춘희아지미가 보고싶다고 종알거리기에 전번 주일에 영애를 동강에 데려왔었는데 진국부가 가고 없어 한숨 피이게 된 송학이 영애를 보내지 않고 놀려두어 오늘까지도 아버지와 같이 있게 되었던것이다. 명화는 수란이를 보고 인사를 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명화는 방금 오는 길이겠군.”

“한참 됐어요.”

“그럼 또 오자마자 일을 했겠군.”

“뭐요. 먼데 있으니 도움이 없어요.”

“우리 아줌마, 아줌마 왔다. 난 정말 좋아.”

그동안 명화에게 정이 든 영애는 명화의 두다리를 붙안고 뱅뱅 돌아쳤다.

“영애, 나하고 같이 집으로 갈가?”

영애는 수란의 눈치만 살살 살펴보고있었다.

“영애 먼저 아줌마와 같이 가도 돼.”

영애는 수란의 말에 흥이 나서 해해거렸다. 명화는 수란에게

“어머니, 그럼 전 영애 데리고 먼저 가겠어요.” 하고 인사를 하고는 영애를 업고 돌아왔다. 길에서 명화가 영애를 들썩거리주고 간질여주는 바람에 영애는 그칠 새 없이 해해거리며 몸부림쳤다.

영애는 등뒤에서 내리기전부터 벌써

“아줌마, 날 사탕이랑 과자랑 줘.” 하고 졸라대었다.

“응, 응, 뭐나 다 줘.”

집에 돌아온 명화는 가방에서 영애에게 입힐 옷부터 꺼냈다. 영애를 앞에다 세워놓고 살빛속적삼을 입히었다. 내의 목깃이 코에 걸려서 얼른 내려가지 않았다. 영애는 두손을 휘저으며 죽는다고 아우성을 쳤다. 명화는 다급하여서 앞뒤로 손을 대고 아래로 내리당겼다. 순간 얼굴이 내놓이자 영애는 내가 언제 아우성을 쳤느냐는듯이 해해 웃으며 옷을 내려다보고 또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였다.

“아줌마, 내 때때옷 정말 고와, 응.”

“호호, 방금 바사지는 소릴 하던 애가… 영애 정말 예쁘구나. 이번엔 아래내복을 입어봐야지. 발을 들어.”

내의를 다 입히고나서 명화는 노란빛골덴바지에 빨간 골덴 저고리까지 입혀주었다. 새옷을 입은 영애는 너무 기뻐 손벽을 짹짹 치며 폴짝폴짝 뛰기까지 하였다.

“아줌마, 나하고 뽀뽀, 응.”

영애는 앵두 같은 입을 명화에게 내밀었다. 명화는 영애의 볼에 입을 대고 “뽀뽀” 하며 영애를 그러안았다. 그리고는 사탕 과자를 꺼내주며

“아줌마가 맛있는 반찬을 해줄게. 영애 혼자 놀아 응.” 하고 부엌으로 내려갔다. 그녀는 불을 지피놓고 가지고 온 소금에 절인 물고기를 씻고 감자를 썰어서 가마에 안쳤다. 그리고 한쪽 가마에는 물을 조금 두고 아침에 먹다 남은 밥을 들여놓았다. 삽시에 가마는 벌렁벌렁 끓어번졌다.

영애는 과자를 먹으며 거울앞에 가 새옷을 입은 제모습을 비춰보기도 하고 볼에 손을 대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해쭉 웃기도 했다.

이것을 본 명화는 저렇게 귀한 어린것을 두고 죽은 어머니는 차마 눈을 감지 못했을것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다.

“영애야,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그 때때옷 입고 춤을 춰라 응.”

“아줌마, 내 춤추는걸 보겠어?”

“아줌마 볼게. 어서 춰봐.”

영애는 명화를 향해 꾸벅 인사를 하고나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췄다.

우리 엄마 기쁘게 한번 웃으면
구름속의 해님도 방긋 웃고요
우리 엄마 즐겁게 한번 웃으면
아름다운 꽃들도 피여납니다
고생속에 살아오신 우리 어머니
웃으시면 온 집안에 꽃이 핍니다

영애는 고사리 같은 손가락으로 두볼을 짚으며 보동보동한 발을 앞으로 내뺐다 뒤로 들어났다 하면서 짱충짱충 춤을 추었다.

이때 강뚝을 쌓는 공사장에 갔던 송학이 집으로 돌아오다가 자기 집 굴뚝에서 흰 연기가 물물 피여오르는것을 보고 느닷없이 정순이가 집에서 점심밥을 짓고있다는 환각에 사로잡혔다. 정순이 금시 문을 열고 마중을 나오는것 같아서 가슴이 울렁거렸다. 다급히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채송학은 자기가 환각을 일으켰다는것을 깨달으면서 꿈에서 깨어난듯 흐리마리한 기분으로 머리를 수긏하고 맥없이 문을 열었다.

집에 들어선 그는 춤을 추고있는 영애와 그것이 귀여워서 깔깔거리고있는 명화를 보았다. 또 어수선하고 스산하기 그지없던 집안이 몰라보게 정돈되고 산뜻해진것도 보았다. 그는 또다시 정순이를 보는듯한 환각세계에로 끌려들어가 실신한 사람마냥 멍청하니 서있기만 하였다.

“아버지, 아줌마가 왔어.”

“어머, 인제 돌아오세요?”

채송학은 영애와 명화의 소리에 문득 제정신이 들었다.

“오느라고 수고했소.”

“그간 얼마나 바빠 보내셨어요?”

“뭐 별로 바빠 보내지 않았소. 요즘엔 일에 성수가 나오. 집은 다 무사하오?”

“네, 다 여전해요.”

송학이는 신을 벗고 구들로 올라왔다.

“명화는 또 일만 했구만.”

명화는 얼굴에 살짝 홍조를 비끼었다.

“제가 무슨 외인이라구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난 사실 재 에미가 살아왔는가 하구 착각을 하였댔소.”

그 말을 들은 명화는 부끄럽고 슬프기도 하였으며 시샘이 나기도 했다. 유쾌하던 방안의 공기는 삼시간에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일순 송학이는 자기가 엉겁결에 돌이킬수 없는 실언을 했다는것을 느끼고 무슨 말로 설친 명화의 기분을 돌려세울가 하고 생각을 가다듬을 때 영애가

“아버지, 내 때때옷 봐. 아줌마가 사왔어.” 하고 조잘거렸다.

“야, 정말 곱구나. 넌 아줌마께 고맙다고 인사를 드렸느냐?”

영애는 쪼르르 명화에게로 달려가서 그녀의 목을 끌어안았다.

“난 아줌마가 좋아. 아버지도 좋아하지?”

송학이는 어린것의 철 없는 말에 그만 웃음보가 터져서 최근에는 보기 드문 유쾌한 웃음을 웃었다. 명화도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킁킁하고 웃었다. 집안에는 다시금 가볍고 유쾌한 기분이 흘러넘쳤다.

이렇게 집안이 한창 들끓고있을 때 한 30이 되여보이는 녀인이 채대장을 찾으며 들어왔다. 그녀는 송학에게 인사를 하고 등디목에 걸터앉아 명화를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영애, 오늘은 분세수를 하고 머리를 따서 곱구나. 그 사탕

나 안 줄래?”

“싫어.”

“넌 뭐구나.”

손님은 송학이가 구들에 올라오라는것도 마다하고

“관주네 가정문제때문에 급히 의논할것이 있어서 왔어요.”
하면서 명화를 다시 바라보다가

“저녁에 와서 조용히 말하지요.” 하고는 나가버렸다.

송학이 문밖에까지 나가 전송하고 들어오자 명화는 그 녀인이 조선족인지 한족인지 몰라서

“저 아주머닌 조선족이겠지요?” 하고 물었다.

“만족이요. 대대 부녀주임이요.”

“난 조선족인가 했는데요.”

명화는 의아스럽게 느껴졌다.

“생긴 모양도 조선족 같더군요.”

“여기선 녀자들은 더구나 가려보기 어렵소.”

대장의 집에는 드나드는 사람도 많았다. 이번에는 고슬고슬 지진듯한 머리를 뒤에다 졸라맨 곱게 생긴 처녀가 찾아왔다. 쌍까풀 진 눈이 유난히 반짝거리는듯했다. 그녀는 송학에게 류창한 한어로

“대장동무, 오늘오후 전 불일이 있어 공지로 못 나가요.”
하며 말미를 요구하였다.

그 처녀가 돌아간후 명화는 그 처녀가 한족이 아닌가고 물었더니 송학이는 조선족이라고 대답하였다.

송학이는 명화에게 ‘문화대혁명’후로는 우로부터 무슨 회의를 하나 공문을 내려보내거나 할 때 조선말과 조선문을 쓰지 않고 사회적으로 조선말을 경시하기때문에 그전보다 한족학교에

가는 애들이 많아져 지금 어떤 조선족학교는 문을 닫을 형편이라고 말하였다.

그 처녀가 나간후에는 열서너살 되는 처녀애 둘이 들어왔다. 개들은 아마 명화를 보려고 온듯했다. 한 아이는 키가 더 크고 감쪽하게 생겼으며 한 아이는 얼굴이 둥글넓적하고 어련무던하게 생겼는데 영애를 데리고 놀다가 둘이 붙어서 봉당 이구 석저구석으로 갔다왔다하면서 낯선 손님을 보고 그저 생글생글 웃기만 하였다.

이때 춘희가 들어왔는데 그녀는 그 애들에게

“앉아서 놀려무나.” 하고 말하고는 송학이와 간단히 오후일을 토론하고 나가버렸다.

송학이는 명화에게 그 애들을 소개해주었다.

“저 키 작은 애 한쪽이고 이 키 큰 애는 조선족인데 둘 다 각기 제 민족 학교에 다니지만 다 한어도 잘하고 조선말도 아주 잘한대요.”

두 처녀애는 그냥 맞붙어서 서성거리며 호기심을 가지고 명화를 할금할금 훑쳐보며 수줍은 웃음을 웃었다.

명화는 송학의 말을 듣고 그 애들을 보면서

“애들아, 구들에 올라오려무나.” 하고 말했다.

그러나 아이들은 생글거리기만 하고 구들로 올라오려고 하지 않았다.

명화가 밥상을 차리자 두 계집애들은 도망치듯이 나가버렸다.

밥상에는 김치, 고추장, 파가 놓이고 명화가 손수 끓인 감자에 고기를 넣어 끓인 국이 올랐다. 찬밥은 가마안에 넣었으므로 김이 무럭무럭 피어올랐다.